

본당 소식

2024년 11월 교황님 기도지향 : '자녀를 잃은 모든 이'

아들 딸을 잃고 슬퍼하는 모든 부모가 공동체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평화와 위로를 얻도록 기도합니다.

- 미사 전,후 화장실을 이용하실 경우, 성가대쪽 출입문을 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의실은 전례위원, 그날 복사 외 출입 불가)
 - 미사 후, 성전 내 소등에 다 함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11월은 위령 성월입니다.
 - 위령성월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특별히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이며, 우리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하는 은총의 시기입니다.

- 2025/26 밀라노 한인성당 사목위원회
 - 지난 2년 동안 저희 본당을 이끌어주신 2023/24 회장단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로이 시작하는 2025/26 사목위원회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모임/회의
 - 오늘(10일) 미사 후: 25/26 회장단 첫 사목회의(오라토리오)

- 봉사자
 - 계단, 화장실: 정상현 안토니오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235,08€ · 교무금 100,00€

전례 성가

입당 : 16 (온세상이 주님을)

봉헌 : 515 (주여 자비를 베푸시어)

성체 : 151 (주여 임하소서), 166 (생명의 양식)

파견 : 27 (이세상 덧없이)

전례 봉사

이번 주일(11월 10일)	다음 주일(11월 17일)
1독서: 정상현 안토니오	1독서: 엄기용 안토니오
2독서: 우윤정 마리아	2독서: 장세란 세실리아
복사: 변가인 헬레나, 정이한 다윗	복사: 엄채운 엘리사벳, 정아인 레나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 사목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부회장: 엄기용 안토니오 ·총무: 박건욱 레오
- 전례위원장: 이민찬 비오 ·성모회장: 김효경 릿타 ·외교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청년구역장: 진하림 글라라
- 1구역장: 유정연 릿타 ·2구역장: 허희숙 마리아 ·3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2024년 11월 10일 (녹) 연중 제32주일(평신도 주일)

미사 전례

본기도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에게 해로운 것을 모두 물리쳐 주시어 저희가 평안한 몸과 마음으로 자유로이 하느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

제1독서 (열왕기 상권 17,10-16)

그 무렵 엘리야 예언자는 10 일어나 사렙타로 갔다. 그가 성읍에 들어서는데 마침 한 과부가 딸감을 줌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여자를 부르고는, “마실 물 한 그릇 좀 떠다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11 그 여자가 물을 뜨러 가는데 엘리야가 다시 불러서 말하였다. “빵도 한 조각 들고 오면 좋겠소.” 12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 어르신의 하느님께서 살아 계시는 한,

구운 빵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단지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 떨감을 두어 개 주워다가 음식을 만들어, 제 아들과 함께 그것이나 먹고 죽을 작정입니다.”

13 엘리야가 과부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당신 말대로 음식을 만드시오.

그러나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빵 과자 하나를 만들어 내오고,

그런 다음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드시오.

14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 주님이 땅에 비를 다시 내리는 날까지,

밀가루 단지는 비지 않고 기름병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

15 그러자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자와 엘리야와 그 여자의 집안은 오랫동안 먹을 것이 있었다.

16 주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단지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는

제2독서 (히브리서 9,24-28)

24 그리스도께서는, 참성소의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 곳에,

곧 사람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25 대사제가 해마다 다른 생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듯이,

당신 자신을 여러 번 바치시려고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26 만일 그렇다면 세상 창조 때부터 여러 번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쳐 죄를 없애시려고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27 사람은 단 한 번 죽게 마련이고 그 뒤에 심판이 이어지듯이,

28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고대하는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죄와는 상관없이 두 번째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복음 (마르코 12,41-44)

그때에 41 예수님께서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으시어,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돈을 넣었다.

42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렵톤 두 닢을 넣었다.

그것은 콰드란스 한 닢인 셈이다.

43 예수님께서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44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목자이신 주님, 주님의 백성인 교회의 모든 구성원을 보호하시고, 특히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보편 사제직을 수행하는 평신도들이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2.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치이신 주님, 분단으로 오랜 시간 참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저희 겨레를 굽어보시어, 남과 북이 다시 대화의 길을 찾고 진심을 전하며, 화해의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소서.

3.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혜의 샘이신 주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살피 주시어, 평온한 마음으로 시험을 잘 치르고, 인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4.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명이신 주님, 저희 가정 공동체를 굽어보시어, 가정과 생명의 소중함이 소홀해지는 이 시대에, 가장 작은 주님의 교회인 저희 가정들이 참행복과 생명의 가치를 세상에 보여 주는 본보기가 되게 하소서.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이 제사를 자비로이 굽어보시어

저희가 성자의 수난을 기념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그 신비를 따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